

# Banglatti

2014 APRIL



## April Report

김진경  
황하람  
신지혜  
오효정

BIRISIRI YMCA, BALGANGA-3

RAONATTI 11<sup>th</sup> Batch



2014 APRIL

# I. 일정 소개



BIRISIRI YMCA, BALGLADE

RAONATTI 11th Batch



# I . 일정 소개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 다하파라수업 · Y캠퍼스클리닝	2 · 비리시리Y 에셋 정리 · Y캠퍼스가드닝	3 · 다하파라수업 & 피크닉 회의 · 현지가정방문	4	5 · 3월보고 준비 · 350ppm토의
6 · 현지교회 · 힌두 커뮤니티 방문	7 · 다하파라수업 · 다하파라 클리닉 활동	8 · 다하파라수업 · Youth Music Club	9 · West Utrail 마을 survey	10 · 다하파라수업 · 다하파라 피크닉 불품 준비	11 · 다하파라피크닉 물품 및 진행준비	12 · 다하파라피크닉 · Youth Art Club
13 · 현지교회 · 다하파라 맵핑 & survey 준비 · Youth Movie Club	14 <b>Bangla New Year's Day</b> · 컴패션방문 · 페이스페인팅 및 모금활동	15 · 다하파라수업 · Youth Music Club	16 · Youth Club · 외부홍보 포스터 제작	17 · 다하파라수업 · 다하파라클리닉 Survey	18 · 다하파라 Survey 수정 및 진행토의	19 · GruopWork · Youth Art Club
20 <b>Easter Sunday</b> · Sunrise Worship · West Utrail 마을과 점심 & 크리켓 경기	21 · 다하파라수업 · 다하파라클리닉 Survey	22 · 다하파라수업 · Youth Music Club	23 · 350ppm 프레젠테이션 준비	24 · 다하파라수업 · 다하파라클리닉 Survey	25 · 4월보고 준비	26 · 가로문화배우기 · Youth Art Club
27 · 현지교회 · Youth Movie Club	28 · 다하파라수업 · 다하파라클리닉 Survey	29 · 다하파라수업 · Youth Music Club	30 · 멘토와의 만남			



# II. 활동정리

1. 다하파라 NFPE & CLINIC
2. 비리시리 YOUTH & LOCAL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2) 다하파라 클리닉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3월부터 진행하였던 NFPE 수업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단원들 각자의 방법으로 아이들과 친밀해지고, 수업을 운영하는 데에도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고 있다. 분반수업 때 교실을 바꾸면서 생겼던 조그마한 혼란도 이젠 자전거 벨을 수업 종으로 사용하는 등 우리의 방법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아이들이 우리와 친밀해지면서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진주훈련 때 아이들과 소통하는 연습을 해두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전거 출근길의 피로가 천사 같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싹 사라지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모두 전해지길!

	월	화	목			
다하파라 대안학교	30분	영어 1	영어 애니	수학 1	음악 2	미술 / 체육 (매월 넷째주)
	30분	영어 애니	영어 2	음악 1	수학 2	

-영어 (김진경/분반)

-미술 (신지혜/합반)

-수학 (황하람/분반)

-음악 (오효정/분반)

-영어애니메이션 (오효정/분반)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① 영어 진행상황

4월까지 진행해오던 수업 방식에서 한계를 느낀 이후로, 수업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Class 1 아이들은 상상 이상으로 수준 이하였고, Class 2는 아이들이 진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였다. Class 1 아이들이 내년에는 Class 2로 올라갈 것인데 수준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는 것이 살짝 충격이었다. 느리더라도 Class 1 아이들은 알파벳과 기본 회화를 우선으로 확실히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에, 기초를 다지기로 하고, Class 2 아이들은 기초에 나가고 있는 책 진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수업들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라서 집중력의 한계가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집중력이 끊이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수업방법을 꾸준히 더 찾아봐야겠다. 그 예로 색종이를 이용한 색깔 공부는 이미 책에서 배우기는 하였지만 색종이를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집중을 많이 끌 수 있었다. 다하파라 및 비리시리 YMCA측에서는 시험을 위한 영어를 많이 가르치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시각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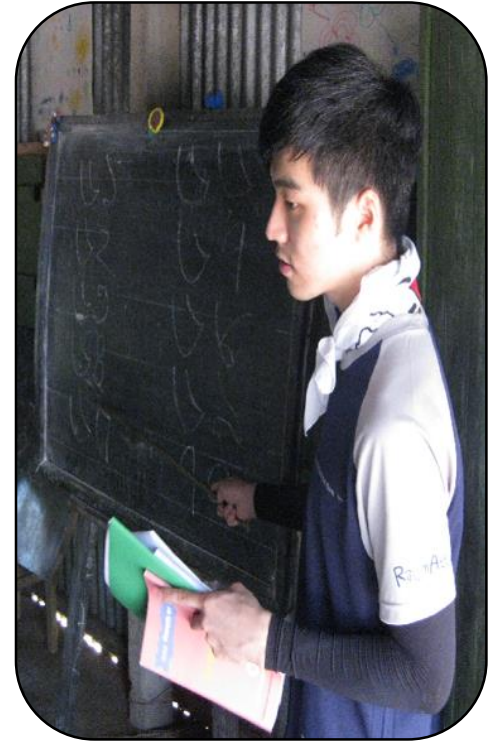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② 수학 진행상황

수학은 class 1과 class 2로 분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class 1 아이들은 아직 숫자를 읽고 쓰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선 숫자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고유의 숫자표기법이 따로 있어서 아라비아 숫자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또 숫자를 읽는 방법이 각각 다 달라서 이것을 모두 습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lass 1 아이들은 숫자 1부터 차근차근 읽고 쓰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다. Class 2 아이들은 숫자를 읽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쓰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숫자 50부터 벙골어 표기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차례대로 숫자를 외워서 그 순서에 기반하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해당 숫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다. Class 1, 2 모두 숫자카드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발표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진행 중이다.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③ 음악 진행상황

음악 수업의 목적은 아이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일상적으로 동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나 찬트를 영어, 방글라로 가르치고 있다. Class 2는 영어 노래에 더욱 흥미를 느껴, 'Hello', 'Month Chant'를 함께 불렀고, Class 1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Hello'의 방글라 번역버전인 '노모시깔'을 반복적으로 율동과 함께 가르치고 있다. 다음 차시는 '나비야'의 방글라 번역 버전을 수업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멜로디가 있는 노래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래를 복습하고 음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또, 음악 수업이 체육 수업과도 병행되도록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노래에 맞춘 율동이나 수건 돌리기 게임 등으로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진행한 '페트병 타악기' 만들기 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소리를 만들고, 다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보냈던 즐거운 수업이었다.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④ 영어 애니메이션 진행상황

한국에서 준비해온 각종 영어교육 애니메이션을 함께 시청하고, 그날 나온 단어와 표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10분여의 유아용 애니메이션(포코요)을 시청하고 함께 춤을 추며 마무리했는데, 음악 수업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 20분여의 '도라' 애니메이션으로 수업하고 있다. 아이들이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고, 다양한 상상력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다. 확실히 Class 2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단어를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등 복습시간에도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Class 1 아이들은 아무래도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라 10분 여의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보고 함께 춤을 추며 복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Class 1의 커리큘럼을 수정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수업의 집중도나 성취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⑤ 미술 진행상황

미술수업에서는 아이들만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을 재료로 삼아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영어, 수학시간에 배운 것을 미술에 녹여낼 수 있도록 숫자와, 요일, 월을 직접 써넣는 ‘달력 만들기 수업’과 영어로 동물 이름을 써넣은 ‘모자이크 수업’을 진행하였다. 확실히 감각이 있는 아이들도 보이고 있다.

첫 수업에서는 방글라로 아이들과의 소통, 난이도 조정, 코디네이터와의 수업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 등 문제점들이 보였다. 그래서인지 많이 우왕좌왕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매번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 역시 잘 따라와 주고 있다. 미술 수업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팀원들의 역할도 큰 것 같다.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⑤ 미술 진행상황

4주차 수업에서는 진경단원이 아이들 주려고 가져 온 에코백을 활용한 미술수업을 했다. 아이들에게 그냥 주는 것 보다 스스로 꾸미는 것이 성취감을 안겨줄 것 같았고,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였다. Fabric 염색잉크를 구하고 스프레이 헤드를 구하는 과정이 다소 힘들었지만 가방이 꼭 필요했던 아이들에게 그만큼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다. 또한 나뭇잎을 사용하여 나뭇잎 역시 좋은 미술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각기 자기가 물들인 가방에 교과서를 담아 들고 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에코백 자체만으로 봤을 땐 서투름이 묻어났지만 아이들이 매니깐 오히려 그 서투름이 가방을 더욱 빛나 보이게 했다. 역시 누가 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수업 이모저모 >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 피크닉 ①

4월 12일

야외에서 뛰놀기 좋은 날씨가 지속되던 4월, 아이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피크닉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아이들 간식과 점심 준비 및 예산 책정, 아이들 선물준비 등에 대해 학교선생님, 클리닉 의사,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피크닉을 준비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예쁜 아이들에게 준비과정에서 단원들 모두 열심을 다했다. 최대한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선물을 준비할 때는 이것저것 열심히 깎아가며 사탕 하나라도 더 얹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 피크닉 ②

4월 12일

여러 날을 열심히 준비하고 피크닉 당일, 아침에 모여 학교를 꾸미고 간식을 먹고, 체조와 수건 돌리기를 하며 몸을 푼 뒤 보물찾기 게임을 진행했다. 쪽지 보물을 찾아온 아이들은 황하람 단원에게 가서 간단한 영어, 숫자퀴즈를 맞춰야 했다. 맞춘 아이들은 젤리를 받아 김진경/신지혜/오효정 단원에게 가면 페이스 페인팅을 원하는 그림대로 할 수 있었고 이 때 반응이 참 좋았다. 챙겨간 데틀로 손을 씻고 다 함께 앉아 맛있는 닭고기 카레로 점심을 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간단한 정리 시간을 가지며 선물을 나누고 피크닉을 마무리 지었다. 젤리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잠깐의 혼란이 있었고, 생각보다 동네 아이들이 많이 참석한 탓에 선물이 부족할 뻔 하는 등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기고 매끄럽게 진행된 것 같다. 무엇보다 행복하게 집에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예쁘게 남았다. 아이들과 즐겁게 하루를 보내며 서로 더 친해지는 기분이었다.



#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피크닉 이모저모 >





#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 학교는 지금 공사 중!

진주 YMCA에서 전달받은 지원금으로 학교에 우물, 아동 화장실, 천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물이 없어 학교에 물이 필요하면 아이들이 집에 달려가 물을 길어와야 하고, 비위생적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아야 하는 등의 아이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좋다. 사실 우물 공사는 여러 번 시도 했었지만 지반이 바위로 이루어져 번번히 실패하곤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공법을 이용해 성공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특히 진행중인 공사가 평소 낮익던 다하파라 마을 아저씨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 사람이 직접 그 깊은 우물을 파는 것, 대나무 도르래나 대나무 사다리 등의 전통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신기하게 보이기도 했다. (4월 30일 현재, 우물공사가 잘 되지 않아 2개월 후에 재개될 예정이며 화장실 및 천정보수공사는 완료되었다.)



# 1. 다하파라

## (2) 다하파라 클리닉

### \* 소 배설물 문제

클리닉은 소똥을 비롯한 동물의 오물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방문하여 큰 구멍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방글라데시에는 소, 염소, 개, 오리, 닭 등을 비롯해 각종 동물들이 거리를 마음껏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동물의 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어 위생과 보건상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지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물을 한 곳에 모아 버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마을 주민들, 특히 맨발로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병원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하파라 클리닉에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오물을 한 곳에 모아 치우는 것의 필요성을 마을 주민 스스로가 인지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큰 구멍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 1. 다하파라

## (2) 다하파라 클리닉

### \* 마을 Survey 및 마을지도 만들기

방글라피의 클리닉 활동은 소풍과 화장실 등 보건 및 위생 이슈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Dahapara, Tilapara, Badambhari 세 지역의 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지도를 만들고 있다. 진행 중인 지역조사(survey)와 지도(mapping)는 향후 비리시리 YMCA와 다하파라 클리닉이 해당지역에서 프로젝트 혹은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될 예정이다. 100여 가구 중 현재는 30여가구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실제 우리 기수는 Dahapara, Tilapara, Badambhari 세 지역에서 서베이와 맵핑을 하기에 앞서 비리시리 West Utrail 지역에서 사전연습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서베이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여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에 대해 여러 차례 고민하고 거듭 수정하였다. 서베이의 방향이 현지 상황과 잘 맞을 수 있도록 Birishiri YMCA 총장님과 토의도 거쳤다.

또한 실제 가정을 방문하여 서베이를 진행할 때 제대로 역할분담이 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가정이 서베이의 목적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할 수 있도록 라온아피(현지어 인터뷰), 의사 및 간호사 선생님(인터뷰 보충), 현지코디네이터(단순통역)의 역할을 알맞게 분배하였다. 언어의 장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정한 결과 이제는 보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1. 다하파라

## (2) 다하파라 클리닉





## 2. 비리시리

- (1) Youth Club
- (2) 힌두 커뮤니티 방문
- (3) 쓰레기통 설치
- (4) 공교육 파견 준비
- (5) 홈스테이 준비 - 개별면담
- (6) Bangla New Year's Day
- (7) Easter Sunday
- (8) 가로 문화배우기

# 2. 비리시리

## (1) Youth Club ①

Youth들과의 회의를 통해 정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Youth Club이 진행되고 있다.

### Music Club

- \* 시간  
: 매주 화요일 4시
- \* Club Keeper  
: 김진경, 오효정,  
Mittel, Rinda
- \* 합창 &  
한국-방글라 노래배우기

### Art Club

- \* 시간  
: 매주 토요일 4시
- \* Club Keeper  
: 신지혜
- \*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미술활동

### Movie Club

- \* 시간  
: 매주 일요일 4시
- \* Club Keeper  
: 황하람, Broshit
- \* 다양한 장르의 영화 시청  
및 서로의 감상 나누기

# 2. 비리시리

## (1) Youth Club ②

### 〈운영 방식〉

그 동안 네 기수가 이 곳을 거쳐가면서 라온아피의 Youth 프로그램은 라온아피가 선생님이 되어 무언가를 가르치는 하나의 문화강좌처럼 자리매김해 있는 느낌이다. 사실 우리 팀은 이곳에 도착하고 나서 이 친구들에게 뭘 ‘가르친다’는 것이 상당히 민망했다. 기타나 배드민턴은 이 곳 youth들에게 배우는 입장이고, 태권도나 택견과 같은 운동은 하지 못하는 우리였다. 우리 팀은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자주 안 오는 youth들도 끌어들이어 다 함께 뭔가를 하고 싶었고, ‘동아리’의 개념에 착안해 youth club을 제안했었다.

이러한 우리의 의도가 잘 녹아질 만한 장치가 필요했고, 지속적인 고민 끝에 ‘Club Keeper(C.K.)’를 두기로 했다. Club Keeper는 클럽의 전체적인 운영이나 youth들을 클럽으로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국 C.K.와 방글라 C.K.가 함께 세워진다. 한국 C.K.와 방글라 C.K.는 서로 의논하여 매주 현지상황에 맞는 클럽활동을 짜고, 클럽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한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리매김해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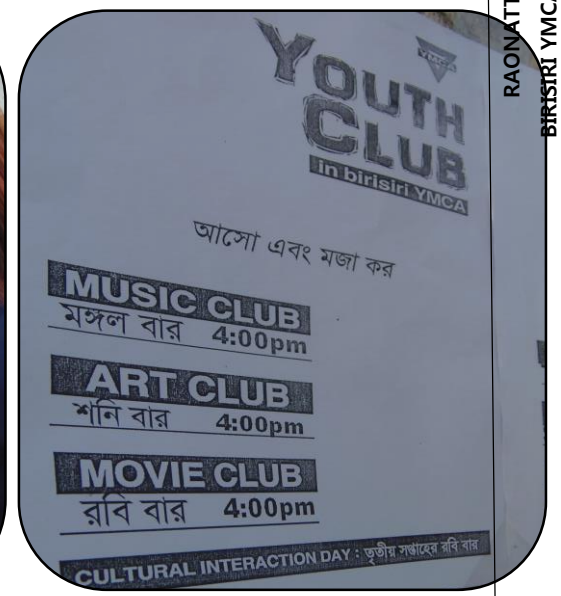
특히 **Movie Club**은 우리 팀이 아예 방글라 C.K.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기로 한 클럽이고, 이를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영화들을 문서로 정리해 youth룸에 붙여놓았다. C.K. 주도로 youth들이 영화를 선정하고 시청 후에도 C.K.가 주도하여 이야기를 이끄는 방식인데, 일단 youth들의 반응은 괜찮은 편이다. 아직 우리 모두 서툴고 미숙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더 튼튼한 클럽이 되길 기대해본다.

# 2. 비리시리

## (1) Youth Club ③

### <홍보 계획>

YMCA에 속한 Youth들은 많지만 자주 찾는 Youth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youth club 홍보를 계획했다. 우선 YMCA 캠퍼스 안에 우리의 클럽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외부 커뮤니티에도 알려지게끔 전단지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이는 활동을 전개했다.





# 2. 비리시리

## (1) Youth Club ④

<진행 모습>



Art Club  
4-6 pm

### MUSIC

Girl		Boy	
Soprano (high)	Alto (low)	tenor (high)	Bass (low)
Shiuli	Dipa	Ajoy	Shojol
Sweety	Sulagna	Rubel	Koo
Dipa	Silmi	Mittel	Jecky & Linda
	Linda	Jekson	Clever
	Anuva	Shaku	Su jon
			SARIN



# 2. 비리시리

## (2) 힌두 커뮤니티 방문 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가로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제한적일 수 있는 우리 생활의 범위를 넓히고 이해의 폭을 키우기 위해 힌두 커뮤니티를 방문하였다. 당시 우리는 종교와 관련된 무거운 질문이나 해당가정의 경제적 문제 등과 같이 다소 민감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Youth들과 함께 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고, 힌두교가 가지는 특별한 풍습이나 삶의 모습에 대해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2. 비리시리

## (2) 힌두 커뮤니티 방문 ②

그러나 이후 Birisiri YMCA 총장님과의 나눔 시간에 총장님께서는 힌두 혹은 이슬람 커뮤니티를 방문할 때 그들의 종교, 특히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남녀불평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셨다. 또한 덧붙여 결혼 시 발생하는 종교나 혼수문제로 인한 살인 및 폭력의 문제, 유산상속으로 인한 성차별 문제 등을 이야기해주셨다. 우리들도 궁금했지만 무례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인해 질문하지 못했던 것이었기에 향후 방문하게 될 이슬람 커뮤니티에서는 결혼혼수문제, 상속문제 등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한 남녀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어볼 계획이다. 성차별 문제는 가로족 내에서도 나타나곤 하는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5월 중으로 youth들과의 회의 및 나눔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 2. 비리시리

## (3) 쓰레기통 설치

우리 기수는 방글라데시에 처음 도착한 순간부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3월 보고서) 과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의 다양한 고민 끝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우리들의 자체적인 회의와 지속적인 고민 그리고 수 차례에 걸친 Birisiri YMCA 총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에 3월에는 지역을 파악하고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 유동인구가 많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흩어져있는 Utrail 마켓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마켓 위원회의 위원장, 이사장님을 모셔서 쓰레기통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여쭙보았고, 설치 후에는 매일 마켓 청소시간에 쓰레기통을 비워줄 것을 약속 받았다. 비운 쓰레기는 플라스틱과 기타 쓰레기로 분류하여 묻거나 태울 것이라는 마켓 위원회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쓰레기통을 분리하여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예산책정 및 장소선정을 완료했고, 5월 4일 NCYB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5월 8일 총 3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활동은 단순히 외국인들이 설치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는 이벤트성 활동이 아니라, 현지 지역 분들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 지속성 있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쓰레기통의 설치로 인해 현지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문제에 대한 이슈를 자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쓰레기통이 설치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홍보 캠페인이나 클리닝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해야겠다.

# 2. 비리시리

## (4) 공교육 파견 준비 ①

지난 3월에 계획했던 공교육 파견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350ppm 캠페인 및 환경을 주제로 선정하였고, 5월 초순에 약 1시간 가량의 방문이 예정되어있다. 우리의 부족한 언어도 문제이지만, 1시간을 온전히 말하기로 끌어가는 것에는 우리와 학생들 모두에게 무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넣어 수업을 이끌어가기로 하였다. 4월에는 수업의 outline을 짜고 영어 대본을 만들어 youth들과 함께 방글라로 번역하였고, 효과적인 교구와 시각자료를 준비 중이다. 교구 및 대본 준비가 끝나면 YMCA에서 Youth들과 함께 여행연습을 하고 이것을 충분히 숙지한 뒤 아이들을 만날 예정이다.

\* 구체적 수업계획안 - 다음페이지 참조

# 2. 비리시리

## (4) 공교육 파견 준비 ②

### I. 개관

세계는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이웃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우리의 이웃들(다른 국가들)이 현재 앞두고 있는 환경문제들을 시각자료로 보여준다.

### II. 지구 온난화란?

-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결과, 그 피해
- 북극곰 체험활동

### III. 지구 온난화를 위한 움직임, 350ppm

- 350ppm 캠페인 소개
- 내가 실천할 수 있는 350ppm
  - : 일상적인 행동과 그에 따라 감소하는 co2수치
  - 그림카드로 제작
- 내가 실천하고 있는 350ppm
  - : 각자 실천하고 있는 활동에 스티커 붙이기
- 다짐의 시간
  - : 나만의 식목일을 제정하고, 앞으로 꼭 지킬 행동 하나를 스스로 정해 선언문 만들기

# 2. 비리시리

## (5) 홈스테이 준비 - 개별면담

Birisiri YMCA 총장님과 팀 전체적으로는 많은 면담을 진행했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일대일 개별 면담시간을 가졌다. 사실 이번 개별면담은 홈스테이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며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개인별 면담내용은 우리 네 명 각자의 특징, 성격, 성향에 따라 다소간 상이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서의 생활에서 느낀 여러 생각들과 고민 등을 나누고 한국에서의 삶도 나누는 등 정말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편안한 시간이었다. 면담 덕분에 총장님과 더욱 친밀하게 일상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일을 진행하거나 의논하는 데에 있어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 2. 비리시리

## (6) Bangla New Year's Day ①

Bangla New Year's Day (Pohela Boishakh)은 방글라데시 달력상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구정과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Pohela Boishakh은 5일 동안 기념하는데 마을잔치와 더불어 장기자랑공연, 마켓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 기간동안 우리도 마을의 여러 행사에 동참하며 이들과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2. 비리시리

## (6) Bangla New Year's Day ②

### \* Compassion 방문

또한 이 기간에 우리는 비리시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기관인 'Compassion'을 방문하였고 현재 그곳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Compassion은 현재 1km 반경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스폰서십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다. 아동 1명당 1명의 글로벌 스폰서가 존재하며 현재 Birisiri Compassion의 경우 약 379명의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에는 이와 같은 기관이 약 125개 마을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Physical, Social, Educational 세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다.

Compassion 방문 이후 우리 팀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다하파라 NFPE도 1:1 스폰서십이 이뤄지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서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지 고민해보는 한편, 다하파라 아이들은 방과 후 시간에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를 생각해보았다. 또한 방과 후 활동과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 2. 비리시리

## (6) Bangla New Year's Day ③

### \* 페이스페인팅 및 나무심기활동 모금

지난 youth 포럼에서 함께 모금활동을 통해 나무심기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많은 인파가 몰리는 Pohela Boishakh을 활용하여 페이스페인팅을 통한 모금활동을 기획하였다. Youth들과 의논하여 장소와 가격 등을 정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살칭, 히무와 함께 고객을 맞을 준비를 했다. 페이스페인팅을 한다는 팻말과 포스터를 만들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행사장에 가서 자리를 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열심히 포스터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홍보했다. 페이스페인팅을 하던 살칭을 포함한 많은 Youth들과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상황을 정리하기도 하고, 열심히 이 모금의 의미를 설명하며 활동을 함께 펼쳤다. 약 5시간 가량 퇴약벌에서 열심히 장사를 한 결과, 무려 355다카가 모여 나무 18그루를 구입할 돈이 생겼다!



# 2. 비리시리

## (6) Bangla New Year's Day ④

### \* 페이스페인팅 및 나무심기활동 모금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가격을 정하고 보니 우리의 페이스 페인팅(20다카)이 비싼 편이었다는 것인데, 다음엔 '박리 다매'를 노려야겠다. 또한 실험적으로 돈 받는 상자 옆에 기부함을 만들어보았는데, 눈에 띄지 않아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 것 같았다. 차라리 돈을 분리시키지 말고 요금을 기부함에 고객이 스스로 넣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이번 활동이 지니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일단 무엇보다 너무 재미있었다. Youth들과 함께 활동을 펼칠 수 있어 더 즐거웠고, 이 때 우리의 고객이었던 분들은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됐다. 방글라데시의 큰 명절에 우리도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뿌듯함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다.



# 2. 비리시리

## (6) Bangla New Year's Day ⑤



# 2. 비리시리

## (7) Easter Sunday ①

지난 4월 20일, 우리 팀은 이곳에서 Easter Sunday(부활절)를 맞았다. 크리스천이 99.9%인 가로 커뮤니티에서는 Easter를 아주 특별한 축제처럼 보낸다. 타지에 나가 있던 가족들이 모두 돌아와 축제를 함께 즐기는데, 우리가 매주 출석하는 교회에도 이 날 사람들이 2~3배 가까이 더 모였다.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은 잠을 자지 않고 새벽송을 부르며 마을을 함께 돌아다니고, 새벽 4시 반에 들판에 모여 해돋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도 새벽 3시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함께 촛불을 들고 해돋이 예배를 드렸다.

Easter 오후에는 마을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다 함께 점심을 먹고 크리켓 경기를 즐기는 등 마을축제가 벌어졌다. 우리도 총장님과 여러 Youth이 살고 있는 West Utrail 마을 점심식사에 초대받아 함께 즐겼다. 닭다리를 먹으면 다음 축제 때 그 사람이 닭 한 마리를 사와야 한다는 전통도 재미있었다. 마을의 이웃이 모두 모였는데도 다들 어색함 없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이웃 간의 끈끈한 친밀감이 느껴져 행복했다. 우리도 음식 서빙을 돕고,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마을의 일원처럼 놀았는데 참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다. 점심을 먹고나서 들판에서 크리켓 경기가 벌어졌는데, 함께 응원하고 소리지르면서 youth들과 더욱 돈독해진 기분이 들었다.

# 2. 비리시리

(7) Easter Sunday ②



# 2. 비리시리

(7) Easter Sunday ③



# 2. 비리시리

## (8) 가로 문화배우기

4월 27일, 가로문화센터의 슈르존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로 문화에 대해 알려주셨다.

- ① 가로족은 스스로를 Achik, Mandi라 지칭하는데,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가로족은 Achik으로 지칭한다. 가로족은 과거 티벳 쪽에서 인도 남부로 내려와 삶의 터전을 마련했고, 현재도 인도에 많은 가로족이 거주한다.
- ② 가로족은 모계사회로, 엄마 성씨(machong)를 따르고 유산도 딸에게 남겨진다. 이는 과거 잦은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을 대신해 여자들이 가정을 이끌면서 나타나게된 현상이다. 가문(Machong)이 끼리끼리 묶여 약 7개의 Jachi을 이루고 족내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족내혼이 이루어질 경우, Madong(Married mother's)로 불리어 커뮤니티에서 배척된다.
- ③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는 'Songsarek' 이지만 이후 미국과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유입되었고 현재는 가로족의 99.9%가 크리스천이다.
- ④ 가로어는 많은 갈래로 나뉘는데, 우리네 사투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다만 언어 간 차이가 꽤 큰 편이라 구사하는 가로어가 다를 경우 의사소통이 잘 안될 수 있다. 많은 갈래 중 Ambeng과 Abeng이 주로 통용되고 있으며, Awe의 경우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알파벳을 이용한 읽고 쓰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비리시리 지역은 주로 Brak을 사용한다.



# 2. 비리시리

## (8) 가로 문화배우기

⑤ 이외에도 주거문화, 전통악기, 장신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다. 5월 중에 가로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더욱 많은 기대를 품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014 APRIL

# III . 방글라데시 국민이야기

BIRISIRI YMCA, BALGLADESH

RAONATTI 11<sup>th</sup> Batch



# 방글라딕 고민이야기

## [1. 활동고민]

1. 350ppm

2. 다하파라 클리닉

3. Happy Easter!

4. 나무심기 모금활동

## [2. 생활고민]

1. 선물과 호의에 대한 생각

# 1. 활동고민

1. 350ppm

국내 훈련에서부터 우리 팀은 350ppm을 6월 5일 하루 이벤트성 활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글라데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다양한 활동들 속에 녹여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러 활동 중 하나가 바로 flea market이었는데, 애초 우리가 예상했던 flea market은 옷, 신발, 학용품, 모자, 장신구 등의 여러 물품 등을 아나바다 운동처럼 서로 바꾸고 교환하고 구입하는 마켓과 더불어 노래경연, 운동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접목하여 하루의 마을축제처럼 꾸미고자 했던 것이었다. 350ppm과 관련된 환경이슈도 이러한 flea market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활동이 현지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우리는 애초 우리의 계획을 믿고 한번 해보자는 안과 현지의 피드백을 믿고 계획을 수정하자는 안 두 가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고민 끝에 우리가 이곳에 과업을 이루고 사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닌 만큼 현지 피드백을 존중하고 우리의 방향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팀 내의 의견을 모았다.

# 1. 활동고민

## 2. 다하파라 클리닉

다하파라 클리닉에서 소 배설물 처리 구멍 즉, 동물들의 오물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이 활동의 목적을 다시금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가 구멍을 파는 현장에는 해당 가정의 건설한 청년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땀 흘려 구멍을 만들 때 멀땕멀땕 우리를 쳐다보기만 했다. 더구나 그 집엔 이미 빈 병 등을 처리하기 위한 깊은 구멍도 파져 있었다. 구멍을 파고서 유익한 일을 했다는 사실에 무척 뿌듯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정에 왜 굳이 우리가 구멍을 파줘야 하는지 궁금했고, 그들이 왜 함께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지 의아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차라리 구멍을 팔 수 없는 집에 파견되어 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의사선생님, 간호사 선생님과 나누어 보았을 때 우리의 고민은 해결되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작업하는 구멍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즉, 오물을 왜 한 곳에 모아야 하는지, 오물을 모으기 위한 구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생각을 일깨우고 이후 그들 스스로 구멍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목적을 되새길 수 있었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활동에 임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팀도 늘 노력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수동적인 자세로 진전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활동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 1. 활동고민

3. Happy Easter! ①

Easter Sunday를 위해 우리가 3월부터 스멀스멀 생각해오던 계획들이 있었다. 처음엔 교회 분들에게 달걀을 나눠주며 인사를 하자는 것부터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걀에 환경 관련 문구를 붙여 나눠주자, 피켓도 만들어 홍보하자는 의견까지 이르렀다. 예산책정이나 진행장소 등 꽤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어졌고, 이 곳 총장님과 달걀예산관련 면담까지 거쳤다. Easter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므로 달걀은 500개쯤 준비해야 하며, 총장님께서서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머지는 Youth들에게 달걀을 1~2개씩 모금 받고, 우리의 자체적인 충당을 통해 채우기로 계획하였다. Youth포럼과 이에 대한 미팅도 가졌었다.

# 1. 활동고민

3. Happy Easter! ②

그러나 Easter바로 전 주, 우리 팀 내부에서 자체적인 제동이 걸렸다. 막상 진행하려니 우리 활동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선 이 곳의 Easter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즐긴다는 것이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 더군다나 종교적인 날에 환경캠페인을 기획하는 것이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총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다. 달걀을 나눠주는 문화가 없는 커뮤니티에서 무턱대고 환경문구가 쓰인 달걀을 나눠주는 것이 현지인의 입장에서선 뜬금없을 수 있었다. 환경 캠페인을 떼고 달걀만 나눠주는 것에 대한 수정안도 나왔지만, 그것도 이 곳 분위기와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모아졌고 결국 이번 계획은 취소되었다. 우리가 한달 여의 기간을 두고 조금씩 준비했던 활동이라 아무래도 욕심도 있었고, 많은 기대를 했기에 포기하기가 힘들긴 했다. 하지만 고민을 거듭할수록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쪽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우리가 계획한 특별한 활동 없이 커뮤니티의 Easter축제에 참가해 이를 온전히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지만, 우리 팀에게는 이번 일이 우리의 활동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늘 현지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몸소 그렇게 행동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지나보니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심스레 한 발짝 물렸던 우리의 행동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곳의 Easter를 충실히 즐기는 것도 참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었다. Happy Easter!

# 1. 활동고민

## 4. 나무심기 모금활동

이번 명절을 이용해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모금을하기로 한 것은 사실 Youth들의 아이디어였다. 그리고 회의 당시 우리는 Youth 포럼이 주체가 되어 모금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막상 명절이 임박해왔을 때 Youth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다. 이번 활동의 페이스페인팅을 하는 것부터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Youth들이 함께했지만 사실 기획의 주체가 우리 팀이었기에, 모인 돈으로 선불리 나무를 심는다면 우리가 한번 더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Youth가 주체로 어떤 모금활동을 추가로 기획하고 다같이 모은 돈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을 Youth들과 나누었고, 일단 나무를 심는 활동은 6월로 미루고 모금의 방도를 고민해보기로 했다.



## 2. 생활고민

### 1. 선물과 호의에 대한 생각

우리는 매일같이 youth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 것만 사도 되나? 다른 아이들것도 다 사줘야 하나?’와 같은 고민들로 간혹 난감해질 때가 있다. 친구끼리 한 두 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들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와 같은 여러 상황을 놓고 생각할 때 가끔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다. 그런데 Bangla New Year’s Day (Pohela Boishakh)에 우리는 이와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들 중 한 단원이 Pohela Boishakh를 맞이하여 마을공터에 열린 마켓에 구경을 갔는데 그곳에서 여자 youth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마켓 이곳 저곳을 구경시켜주고 전통과자를 사주는 등 친절하게 우리 단원을 챙겨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수공예품을 사더니 그것을 우리 단원에게 건네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종 친구끼리 작은 선물을 하듯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지만, 당시 우리 단원은 괜히 youth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에, 그녀에게 괜찮다며 본인이 그것을 지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에 여자 youth가 다소 민망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본 것 같아 괜스레 마음이 불편했다. 이후 우리 네 명은 나눔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우리도, youth들도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진심의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Youth들을 아끼고 사랑하기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되려 그들에 상처가 되지 않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IV. 단원소감

2014 APRIL



Ajoy  
Shojol  
Dipa  
Shiuli

BIRISIRI YMCA, BALGLADESH

RAONATTI 11<sup>th</sup> Batch

# 4월을 보내며...

돌아보니 이번 4월 한 달은 여러 가지 활동이 풍성히 쌓였다. 보고서를 쓰기 위한 나눔을 진행하면서 우리 네 명 모두 자그마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이번 달은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기획한 활동이 많았다. Youth클럽 외부 홍보, 쓰레기통 설치, 페이스페인팅 모금활동 등 우리가 이제 이 곳에서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이 곳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활동도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내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상이 우리가 아닌 이곳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서로가 느끼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Birisiri와 라온아피가 어우러져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우리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Birisiri 안의 라온아피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 Ajoy

/ Accelerator

Assalam Walaycum!

4월이 초고속으로 지나갔다. 한 달을 돌아보니 4월 한 달간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다. Pohela Boishakh(방글라데시 달력상 새해)가 있었으며 새해 당일에 350PPM 캠페인을 위한 모금을 위해 Youth 멤버들과 함께 페이스페인팅 부스도 설치해보았으며, 가로족의 99.9%가 기독교이었던 만큼 Easter Sunday도 새벽부터 마을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축제분위기였다. Dahapara Project area의 가정들을 방문해서 가족들도 만나보았고, 가정들 중에서 가축 배설물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가정들을 골라서 처리 구멍도 만들어주기도 하며, 4월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Dahapara, Tilapara, Badambhari의 가정 Survey도 진행하는 등 갖가지 일들이 있었다. 본격적으로 Youth 멤버들을 모아서 Club도 진행하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 곳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보기에 좋아 보여서 강행하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하는가 라는 별에 별 고민들도 다 들었는데, 정작 끝나고 나니 인간의 욕심이라고 해야 할까... 아쉬움이 남았다.

2014 APRIL



# Ajoy

/ Accelerator

Dahapara 학교 아이들과의 소풍도 있었는데, 소풍이라고 보기보다는 야외활동(?)의 느낌이 조금 강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뛰어 놀고, 우리나라에서 소풍 가서 흔히 하는 놀이들을 주로 많이 하였는데, 아이들은 세계 만국 동일한가 보다. 그저 저마다 신나게 뛰어 놀고, 옆 친구의 페이스페인팅이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자기도 하나 더 그려달라면서 조르는 아이들, 역시 이런 좁은 마을에서는 입 소문이 빠른 법! 동네 애 엄마들이 자기네 애기들 데려와서 볼에 그려달라고 하는 엄마들도 꽤 많이 몰려왔다. 아이들이, 엄마들이, 동네 어른들이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사진을 찍는데 내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Dahapara Doctor가 내 코 밑에 콧수염을 멋지게 그려 넣었다. 사진에는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실컷 웃었던 것 같지만 그게 나 때문인지는 아직도 미지수!!

4월은 3월보다 월등히 더워졌다. 이제 5월이 되면 홈스테이가 시작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또 한 번의 변화가 나에게 찾아오겠지만, 두렵지는 않다. 나는 어떤 Sir name을 가지게 될지 기대된다.



# Shojol

/ 물들여가기

벌써 두 번째 에세이다.

# 이제 정말 적응을 해서 잘 지내는 것인지 이따금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전화를 할 때면 확실히 지난달에 비해 목소리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나는 점점 현지인이 되어가고 있다.

# 한국에서도 한강 보러 가는 것을 지겹도록 좋아했고 심지어 그 힘든 군대 훈련소에서도 푸른 하늘, 살랑거리는 나뭇잎, 들풀과 야상화를 보며 감상에 젖어들던 나였는데, 이곳 비리시리는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을 문자 그대로 마.음.껏. 느낄 수 있다. 생전 처음 보는 나무들과 들꽃들, 드넓게 펼쳐진 논, 가로수가 길게 이어진 시골길, 정전으로 온 세상이 까만 시골 들판을 수놓는 반딧불이들이 너무 예쁘다. 매일 화성이 빛나는 새벽 하늘을 볼 수 있고, 매일 쏟아질 것 같은 별과 호빵만한 달이 반짝거리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참 아름답다.

# 이제 홈스테이가 시작되어 내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내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더 깊어져 갈 것이다. 누군가를 좋은 기억으로 마음에 품고 싶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추억되고 싶다.



# Dipa

/ Tela-poka

4월은 포헬라 보이삭, 이스터 선데이 등등 여러 행사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곳 문화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더욱 이곳이 편해진 것 같고, 사람들과도 더욱 친밀해진 느낌이다.

요즘에는 다하파라 아이들, youth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다하파라의 어머니들, 애기들과 보내는 시간 역시 참 좋다. 다하파라의 애기들은 더없이 사랑스럽다. 비리시리 youth들은 새롭고 신기한 경험을 많이 시켜준다. 항상 뭔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데리고 다녀주는 youth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맙다. 이곳의 생활이 즐거워질수록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흐른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비리시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평생 눈에 담아두고 싶다.

처음엔 힘들었던 다하파라 가는 길도 이제는 조금밖에 안 힘들다. 사람의 적응력은 정말 놀라운 것 같다. 단 한가지, 적응을 못하겠는 것이 있다면, 모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바퀴벌레이다. 바퀴벌레.. 참 당황스럽다...이 또한 적응할 수 있으리라 믿어본다.

5월부터는 홈스테이를 하게 된다. 또 어떤 새로운 환경이 시작될지 기대가 된다. 이전 정말 이웃이 되어, 마을 속으로 들어가 산다는 생각이 나를 더욱 들뜨게 한다.



# Shiuli

/ 아름다울 너에게

어제의 다카는 42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더위를 맛보았다고 한다. 거울 앞에 서있는 오늘의 나도 참 새까맣졌다. W곡선으로 치자면 이번 달엔 첫 번째 굴곡이 나를 지나쳐갔다. 바쁜 일정 덕분에 이틀도 안 되어 회복하긴 했지만, 무척 아팠던 몸 탓인지 모든 게 날 괴롭혔다. W곡선의 존재를 알기에 더 힘든 건지, 내가 W곡선대로 흘러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맨 아래 꼭지점을 힘겹게 지나온 듯하다.

지난달보다 방글라 실력은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탓에 언어는 나의 감정을 잘 감싸지 못하고 여과 없이 흘러 보낸다. 덕분에 다양한 감정들이 자유롭게 빠져 나와 수없이 교차되곤 한다. 3월은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면, 4월은 이것을 다스리는 연습을 했다. 언어가 충분히 감싸지 못하기에 내가 가진 감정의 원래 모습을 잘 보살피고 다스릴 필요가 있었다. 또, 한국에 돌아가 다시 바쁜 일상에 돌아가더라도 나 스스로를 놓치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연습하고 있다. 조금만 바빠지면 마음의 여유를 잃기 십상인데, 나 스스로를 대면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고 있다.

2014 APRIL





# Shiuli

/ 아름다울 너에게

가끔 내가 여기서 느린 생활을 배워가는 건지, 게으름을 배워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귀국 후에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내가 여기서 감정을 보살피는 연습을 하고 어떤 바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면, 난 내면의 느린 생활을 잘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

요즈음 잠에 들기 전에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예쁜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하곤 한다. 이렇게 내면의 나와 꾸준히 연습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참 멋진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다.

(예쁜 사람이 되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거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특히 이 곳에선! ㅋㅋㅋㅋ)

2014 APRIL



2014 APRIL

BIRISIRI YMCA, PALGLADESH

RAONATTI 11th Batch

# + Photo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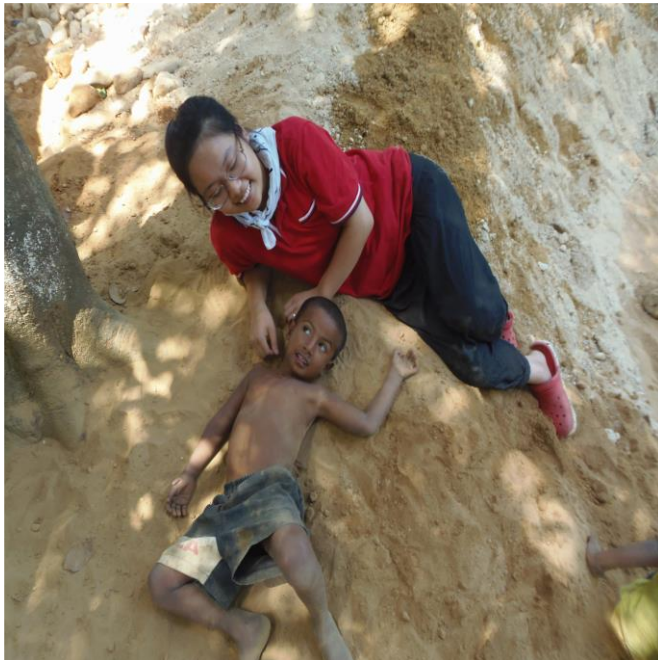


2014 APRIL



RAONATTI 11<sup>th</sup>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2014 APRIL



RAONATTI 11<sup>th</sup> Batch  
BIRISIRI YMCA, BANGLADESH

2014 APRIL



RAONATTI 11<sup>th</sup>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2014 APRIL



RAONATTI 11<sup>th</sup>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2014 APRIL

**Abar Dekha Hobe !**

Ajoy  
Shojol  
Dipa  
Shiuli

RAONATTI 11<sup>th</sup> Batch

BIRSIRI YMCA, BALGLADESH